

칼럼

장기채 주필



### 천지에 순응한 노년의 지혜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는데 있었다.

퇴계 이황(1501~1570)은 하루 두 끼만 먹었다. 반찬도 무, 가지, 미역 뿐일 때가 많았다. 농암 이현보(1467~1555)는 임금이 수심 번이나 불렀지만 한번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요즘엔 노인부양제대를 화제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덕분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뉴스, 노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니, 특히 자식이 사엄하다 말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하게 된다. 이리쿵 저리쿵 잡다한 말들이 오간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씩씩하기만 하다.

과거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의 대가족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친 현대의 핵가족시대에는 더 이상 본인의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은 양재개념이며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비해, 지혜는 질적 개념이며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 사실 인식인데 비해, 지혜는 의미 각성을 의미한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 것보다 가까운 것을 같이 볼 줄 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분복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간다. 세월은 육체의 활기를 빼앗아 가지만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더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 짧은 여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군사력으로 권력을 얻은 고대 아테네의 참주 페이시 스트라토스가 술 본에게 "대체 무얼 믿고 자기에게 그토록 대답하게 반대하느냐"고 물었을 때 술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노년을 믿고" 그 또한 노년의 지혜 아니겠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배우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 하고 할 거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지만 노년은 원숭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랄 것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옛날 노년의 지혜는 천지에 순응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 서 살아왔다.

### 社說

### 난폭운전 단속 강화해야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찰이 집중 단속해 나간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천255건, 3천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 등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또한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15~3월31일에 들어온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

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법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공공위험에 관한 반사회적 범죄인 방화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는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이 화침에 자신의 속소에 방화하여 한밤중에 3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다.

방화는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실화과 달리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초래하

는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방화범의 90% 이상이 검거되고 있다고 한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현실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방화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우선 방화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화재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소방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적극 활용과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으로 방화범 검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방화에 방을 위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방화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역할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방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 빠른 신고 및 초동조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및 확산과 시스템의 운영이 병행돼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방화는 주로 범죄를 은폐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방화와 사회 불만, 가정불화, 호기심 충족, 정신병자들에 의한 우발적 방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거나 범죄를 위한 3자에 의한 방화

가 다수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순간의 충동이나 분노를 식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하는 방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불화 등으로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신체에 불을 지른 경우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우리 소방대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화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다함께 관심을 갖고 쉽게 불을 지를 수 있는 쓰레기,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을 무심코 노상에 방치하여 방화 또는 불장난의 발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방화로부터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 생활정보전화

### 긴급전화

- |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인명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브런치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